

중국 「'91 국제과학기술학술회의」 참가기

“韓民族 과학자들에 새 勇氣줘”



金宗殖

서울대 자연대교수 · 수학

가을에는 일본의 홋카이도에 갔었다. 역지로 우연을 찾는다 면, 사뵈로의 위도가 延吉의 위도와 같다고나 할까. 사뵈로에서 멀지않은 치오쿠즈호수가의 단풍이 무척이나 고왔다. 혼슈와는 바다 건너에 떨어져 있는 만치 일본수학회도 40년만에야 처음으로 홋카이도에서 연구발표회를 갖는다고 했다.

홋카이도에서 열린 일본수학회 모임에서는 가을연구발표회와 더불어 한·일수학회 사이의 학술교류회담이 열렸었다. 몇해전부터 두 수학회는 상호 교류를 희망해 왔었다. 지역적으로 수학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유럽, 미국으로 부터 멀리 고립되어 있는 두나라의 수학계가 서로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이었고,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

되면 그만치 수학연구의 상승 효과도 커질것으로 기대된다.

이야기가 많이 빗나갔지만 학술교류회담이 끝난 뒤 있었던 간담회 자리에서 일본의 원로수학자 한분이 한국에서는 북한과도 수학자사이에 학술교류가 있는가를 물어왔다. 마침 지난 8월에 中國 延吉에서 북한 수학자들을 만나 여러가지 일들을 협의하고 온 터라, 나는 자랑스럽게 남북한간 수학자들의 만남을 전해줄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해가면서 나는 한·일간의 교류에 앞서 같은 민족의 수학자들끼리 서로 만남을 갖고 있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멋있는가를 느꼈다. 또,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침략이나 남북분단의 현실에 어느정도 죄의식을 지니고 있는 일본지식인의 마음

을 조금은 편하게 해주는 것도 그렇게 싫지는 않았다.

지난 8월 延吉市에서 열렸던 「'91 국제과학기술학술회의」의 참가는 우리 수학계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학술회의에 참가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놀라워해야 했던 것은 이 지구의 표면위에는 연구단계의 수준에서 수학에 종사하는 한민족 수학자의 수효가 의외로 많다는 새삼스런 깨달음이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수학분야에서 한국 4명, 북한 3명, 미국 1명 그리고 중국 18명의 교수들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그 가운데 중국교포 수학자들은 연변에서 뿐아니라 할빈, 심양, 길림등 중국 동북부 여러 곳에서 온 학자들이었다. 연변대학에만 해도 40여명의 교포수학자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교포 가운데 적지않은 수의 한민족 수학자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북한은 물론 중국, 소련의 알마아타, 타슈켄트, 모스크우에 산재해 있는 우리 한민족의 수학가족들이 이토록 오랜 동안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지내왔다는 사실에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서 한국수학계가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수확은 북한에서의 수학연구의 참모습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동안 우리 수학계는 북한의 과학원이 발행하는 「과학원통보」와 「수학」지에 실린 논문을 미국수학회가 「Mathematical Review」에 요약한 것을 보거나, 아니면 제한된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북한자료실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수학연구는 대체로 소련의 영향권에 있어 우리의 연구동향과는 크게 달랐고, 또 참고자료가 거의 구하기 힘든 동구권의 것이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북한의 논문은 그 서술형식이 문제제시와 해법제시 형태로 국제적인 관례를 크게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한글화된 용어의 색다름, 인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읽기가 아주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모임에서 실제로 북한학자들에 의해 구두로 발표되는 조직적인 설명을 들

을 때는 논문을 읽을때 느끼는 논리의 비약이나 딱딱함을 거의 의식하지 않아도 좋았다. 특히, 그 수준을 성급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북한학자들의 수학연구에 대한 성실성과 수학연구를 위한 충실한 기본지식이 갖추어 있음을 강의를 듣는 우리들 모두를 기쁘게 해주었다.



◇ 연변대학 앞에서 남북학 과학기술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중앙이 필자)

북한의 수학과 우리의 그것과의 큰 차이는 북한의 수학이 수학기론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따라서 학문으로서의 수학보다는 산업발전의 기초이론으로서의 수학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였다. 아마 남북학술교류가 이루어지거나 통일이 이룩된다면, 수학분야는 남북이 서로 강조하고 있는 수학의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이 잘 조화를 이루어 좋은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번에 연길에 온 북한학자들은 여러가지 점에서 북한의 수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아

니었나 싶었다.

「대역적 극값의 무연 탐색방법에 관한 한가지 연구」, 「비선형 삼투문제의 수값풀이를 위한 여러 그물법」, 「선형화물 프로그램 조종론과 통계적 추정문제에로의 그 응용」이라는 세편의 논문이 모두 응용수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음은 물론이지만, 세 북한수학자들은

현대의 북한사회에 있어 수학의 연구그룹을 선도해 나가는 학자와 북한의 수학교육을 지도해 나가는 수학교육자, 그리고 한창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비교적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수학자로 정선된 느낌을 받았다.

학술회의 기간동안 남북한 수학자들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었다. 이를테면 한국 수학자들은 북한의 집단행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했고, 북한 수학자들은 가급적 정치적인 대화는 삼가하는 조심성을 보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얼마만큼의 경직된 어색함은 끝까지 깔려 있었지만 남북한 수학자들은 수학자들만이 지닌 특유의 소박함속에서 거리없는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다. 그것은 延吉의 西市場을 함께 구경했을 때나, 연변대학 빈관에서 수학분야의 합동 만찬회를 가졌을 때, 백두산에 오르기 위해 같은 버스속에서 자리를 함께 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학술회의의 마지막날 가진 좌담회에서 남북한 과학자들은 몇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예컨대, 남북한 학자들은 앞으로 평양에서나, 서울 또는 연길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민족의 수학연구능력을 함양해 나가자는 안건, 수학용어를 남북이 함께 한글화하자는 용어통일화에 관한 안건, 국제수학올림피아드팀을 단일화하자는 안건, 그리고 수학학술잡지를 서로 교환하자는 안건 등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한 것이다.

북한학자, 중국동포 학자들도 모두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였지만, 남북한 사이에 놓인 정치적인 현실문제들에 엇갈려 대체로 이들 사항이 성취되도록 노력하자는데 합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위에서 토의된 사항중 수학용어의 한글화작업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심층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긍정

적인 한글용어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한국에서도 젊은 수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한글용어 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한글 수학용어 가운데에는 속(Bundle)을 나타내는 「다발」, 소수(Prime number)를 나타내는 「씨수」, 지수를 나타내는 「어깨수」 등 고운 우리말이 많이 있다. 그러나 포물형 방정식을 「팔매방정식」으로 부를 때와 같이 한글과 한자어가 이어질때의 어색함, 또는 작용소를 소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페라포르」 등으로 부르는 것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91 中國국제과학기술학술회의」는 이 회의에 참가한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만주의 눈내리는 별판은 春園 李光洙의 「유정」속에 담긴 사랑과 「인간의 조건」에 나타나는 삶의 극한이 메아리치는 상상의 땅이며, 북간도의 밤하늘은 尹東柱의 시속에서 차갑게 흐느끼는 페이소스의 하늘이기도 하다.

延吉시를 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흔해져 버린 자동차로 북한을 거쳐 달린다면 한나절에 가고도 남을 것을 우리는 홍콩을 지나고 북경을 땀몰아 큰 원을 그리며 도착했어야 했다.

가는 길에 들린 廣州며, 桂林이며, 西安, 北京은 나름대로 동양문화의 장엄한 무대가 되어

왔던 중국대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지친 몸으로 연길에 도착했을 때는 몇배나 더한 만족감을 느낄수도 있었다.

북경에서 연길까지의 비행기 여행중에 창아래로 보이는 험준한 산악, 연이어 나타나는 끝없는 평야와 구릉과 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쪽의 그림으로 변신시켜주는 질푸른 숲들—이런 창아래의 경치를 바라보며 한때는 우리 선조들의 삶과 숨결이 가득했을 이 광활한 공간을 잃어버린 「상실」을 아파했어야 했다.

학술회의의 마지막 날에는 회의에 참가한 한민족학자 모두가 백두산에 오르는 행사를 가졌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잉태한 聖山을 다시 찾아 분열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주술과도 같은 행사였다.

백두산 등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가슴에는 靑山里 입구를 지나고, 이도백학을 지나 백두산이 저만치 보이는 백두산 입구에 다달을 때의 감격과, 바람이 그토록 세차게 불던 자갈길을 얼마만큼 올랐을 때 문득 눈앞에 펼쳐지는 백두산 천지의 그 환상적인 모습이 영원히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경치는 이번 학술회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삶속에서 새로운 용기가 되어 피어나게 될 것이다. 어찌면, 우리 민족이 태초부터 그랬듯이, 이 용기는 우리 한민족 과학자들의 하나 됨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